



Publication : AVING News

Date : 2008/05/30

Subject : Information-based enterprise control the network eco system



## 정보기반 기업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지배한다

[심영철 2008-09-30]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빛이벤트 2008 아시아 태평양 기자간담회가 30일 후암지로 무명 한 밀레시마 플라워에서 열렸다.

빛이벤트는 네트워크 장비업체를 주축으로 한 서비스업체와 시장조사 기관들이 모여 참가해 각 기업의 시장 공략 전략과 트렌드를 발표하는 글로벌 미디어 행사로 특히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IT현 황에 대해 각 기업들의 전문 해설사와 기자들이 질문을 받히는 기자간담회이다.

이날 기조연설을 나선 HP 프록터부 아시아리퍼널 일본지역 마케팅 디렉터 아물 미즈라는 '정보기반 기업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지배한다'며 정보기반 기업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조연설 모두에서 정보의 흐름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는데, 30년 전 에 낀 몸과 현재를 비교하고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다던 변화의 트렌드가 얼마나 빠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변화는 늘 일어나고 있지만 인간의 선입견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고객의 정보와 사업전략을 노트북에 기록했으며 많은 도면과 정보를 하드디스크로 저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 미디어로 모든 것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전달한다.

특히 예전에는 정보의 획득이 아주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 여기 에 유비쿼터스 기술도 한 몫 했다. 이러한 정보획득의 용이성 또한 변화의 일부다.

또 다른 변화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10의 24승 크기라 할 수 있는 유타바이트(Yottabyte)란 말이 실거날 정도로 최근 데이터 용량이 폭발히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용량증가와 맞물려 주목 받고 있는 변화가 보안에 대한 문제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어느 곳에서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면서 정보 접속에 대한 보안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움직임을 스캔해 노트북에 접속하게 하는 기술이 합성화되고 있으며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스캔해 그에 특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장면이 현실화 될 것이다. 즉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인한 후속한 네트워크시스템이 그에 걸맞은 접속 권한에 맞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인간이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음 미트라라는 이처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의 변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융화(assimilation)다.**

블랙베리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왜 블랙베리가 필요한가? 휴대폰과 아이폰, MP3가 있는데 왜 꼭 블랙베리가 필요한가? 이는 다수의 기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블랙베리 하나로 정보의 영역에 접속하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어디서든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미래사회임을 보여준다. 정보의 융화, 즉 어느 곳에서나 정보에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실화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상화에 대한 기술변화다.**

더 이상 한정된 정보저장 공간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무한정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 이는 인도에 있는 저장 공간을 미국 달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리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가상의 저장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알 수 없다.

**셋째는 보안의 변화흐름이다.**

사람의 제어 범위에 있던 네트워크가 스스로 사용자를 알아보고 권한을 인지한 후 그에 맞는 정보위탁을 허락한다. 노트북을 열면 웹캠이 이용자의 눈을 스캔한 후 노트북 자원의 사용을 허락하며 웹사이트 미디 다른 로그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계와 인간 사이의 소통을 연결하는 에지(The Edge) 인터페이스이다.

PC와 노트북, 핸드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과 기계 사이 교류를 잇는 매커니즘이 될 것인가? 아니다. 기계적 차원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계와 소통하게 되는 능력이 차세대 에지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다.

미래 인터페이스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더 이상 타자를 치는 것으로 컴퓨터와 대화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미래 인터페이스는 "이메일을 열어보세요"라는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욱 인간적인 소통의 기술이 언제 개발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는 "미려한 변화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것을 현실화 시켜줄 기반 기술은 유연하며 폭넓은 네트워크의 개발임을 설명했다.

여러한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호환될 수 있고 모든 장비가 접속할 수 있는 인간의 대뇌를 연상시키는 네트워크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최대한 자동화되어야 하며 적응력이 뛰어나야 한다. 이러한 비전의 현실화는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프라 스트럭처와 PC기업, 스토리지 기업 등 네트워크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기업이 멀티 솔루션을 사용하고 상호 오픈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기술의 선진화는 인간의 습관, 즉 선입견과 밀접한 관련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사진설명: HP 프로커브 아시아태평양 일본지역 마케팅 디렉터 아물 미트라(좌측)와 넷이벤트 TV 편집부 디렉터 마빅 두바시(우측))

All Visual Internet News of Goods  
 심명성 기자(aving.net)

[☞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Copyright AVING. All rights reserved.>